

스타일 구현을 위한 서브텍스트 활용
-영화 <부러진 화살>의 안성기 역을 중심으로-

- I. 서론
 - II. 영화배우 안성기의 연기 패턴
 - III.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서브텍스트 활용
 - IV. 결론
- 참고 문헌
ABSTRACT

어일선*, 정민영

초 록

대한민국 영화에서 대표적으로 국민배우라는 칭송을 받고 있고, 현재 까지 120여 편의 영화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 연기를 해온 국민배우 안성기의 연기 패턴과 서브텍스트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했다. 그는 다섯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김기영 감독의 영화 <황혼 열차>에 아역배우로 데뷔를 하게 되었다. 오로지 스크린을 통해서만 관객들에게 캐릭터를 전달해주는 영화배우 안성기가 그동안 표현해 왔던 연기 패턴에서 비범함, 코믹 연기, 멜로 연기 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정지영 감독의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안성기가 맡아서 연기한 김경호 역할의 서브텍스트를 분석하여 각각의 장면에서 어떤 요소들이 준비되어 잘 들어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연기의 본질은 연극과 영화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쇼트의 특성을 이해하고 준비해서 연기를 실행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화만의 기술적 특성을 알고, 서브텍스트의 표현 방법을 꾸준히 연습하여 드러내는 것이 우선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배우들이 인물의 특성에 맞는 캐릭터의 이해와 준비를 통하여 서브텍스트를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제어 : 영화 연기, 카메라 연기, 서브텍스트, 연기

I. 서론

영화배우 안성기는 1958년부터 2015년 9월까지 12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각종 영화제에서 배우로 33번을 수상했다. 그는 어렸을 때 영화 제작자였던 아버지(안화영)를 통해 1957년 문예영화¹⁾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김기영 감독의 영화 <황혼 열차>에 아역배우로 데뷔를 하게 되었다. 영화 <황혼 열차> 이후 많은 영화에 아역배우로 이름을 날리며 승승장구를 하던 안성기는 1970년에 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에 입학하게 된다. 그러면서 영화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1977년에 다시 김기영 감독의 영화<병사와 아가씨들>이라는 작품의 주인공으로 영화계에 자연스럽게 다시 승선을 하게 된다. 오랜만에 영화계로 돌아온 탓이었는지 흥행을 하지 못했고, 이후에 찍은 영화 3편도 흥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이장호 감독의 영화<바람 불어 좋은 날>을 통해 제19회 대중상 영화제 신인상을 수상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임권택 감독의 영화<만다라>로 제18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남자 최우수연기상을 받으며 흥행 가도에 올라선 배우가 된다. 반세기가 넘게 한국 영화에서만 활동해온 배우 안성기는 대통령, 교수, 형사, 배달원 등 다양한 캐릭터의 역할을 맡아서 명배우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갔으며, 어떤 역할에도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캐릭터를 입힐 수 있는 배우가 된 것이다.

한평생 영화 속에서 살아온 배우의 연기에 대하여 연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영화의 인물마다 자연스럽게 캐릭터를 입혀서 자신만의 연기를 만들어내는 독특한 그의 연기 패턴과 서브텍스트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 이 논문은 2015년도 청주대학교 연구장학 지원에 의한 것임.

1) 문예 영화의 사전적 의미는 ‘예술적 가치를 본위로 하기 위해 유명한 문예 작품을 영화화한 것’이다. 이 용어는 일본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명한 문예 작품이나 유명 소설 혹은 베스트셀러를 영화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문예 영화 [文藝映畵] (영화사전, 2004.9.30, propaganda)

이번 연구에서는 안성기가 그동안 펼쳐왔던 연기적 캐릭터 및 그의 독특한 서브텍스트에 대해 연구해보기로 한다. 제 32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 남자 연기자 상 및 제 48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남자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던 정지영 감독의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경호 역할을 중심으로 어떻게 소화하여 캐릭터를 구축했는지 또 어떤 서브텍스트를 통해 표현했는지 장면 별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영화배우 안성기의 연기 패턴

1. 안성기만이 갖고 있는 비범한 카리스마 연기

영화배우 안성기를 관객들이 생각했을 때 처음 떠오르는 단어는 편안함일 것이다. 이런 편안함이 영화에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그것보다 T.V 토크쇼나 C.F에서 보여주었던 선한 인상으로만 사람들이 기억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인상과는 다르게 영화 속에서의 캐릭터를 보면 당당하면서도 상대방을 말투와 눈빛만으로 제압을 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축적되어 있다.

“엄청난 카리스마적 배우!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넉넉함 때문에 그릇의 크기조차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졌다. 그의 모범적 사생활과 성실함은 차라리 두 번째 매력으로 미루고 싶다.” (배우 박중훈)²⁾

안성기는 강우석 감독의 영화 <실미도>에서 윗사람들의 명령 하달을 복종해야만 하는 군인 정신의 카리스마를 편안하게 표현해내면서 그 안에서 안성기만의 특유의 강열함과 온유함을 잘 보여주었다. 영화 <실미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편의 영화에서도 특유의 편안함이 있는 카리스마는 안성기만이 갖고 있는 일종의

2) 박은주, “[영화세상] '실미도' 최재현 준위역 안성기”, 『한국일보』, 2003년 12월 22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8&aid=0000212988>

연기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2. 인간 냄새가 묻어나는 휴먼 코믹 연기

이명세 감독의 영화 <개그맨>에서 찰리 채플린과 흡사한 머리와 콧수염 분장으로 극중 인물 이중세를 연기하면서 희극적 캐릭터를 잘 소화해냈다. 하지만 영화는 당시의 시대와는 다르게 주류의 영화들과는 달리 컬트 무비에 가깝게 만들어졌고, 다수의 관객이 아닌 소수의 관객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후에 강우석 감독의 영화 <투캅스>, 이명세 감독의 영화<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준익 감독의 영화 <라디오 스타> 등 여러 영화에서 안성기만의 희극적 연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런 그의 패턴은 한 동안 꾸준히 선을 보였다.

관객들은 요즘 ‘한국 전쟁과 그 후 40년’을 다룬 심각한 영화 <그 섬에 가고 싶다>에서 고뇌하는 지식인 안성기를 보다가, 또 ‘웃다가 죽어도 좋다’는 코미디 경찰 영화<투캅스>에서 전형적인 구악 형사 안성기를 보기도 한다. 진지하고 이지적인 성격 배우로 통해온 안성기에 대해 요즘 타고난 코미디 배우로 재평가하려는 이들도 있다. <개그맨>이나 <성공 시대>, <투캅스> 같은 코미디에서 그의 연기가 더 자연스럽고 탄력 있다는 것이다.³⁾

2010년대 이후에는 안성기의 코믹 연기를 보기가 힘들다. 아마도 그의 나이 때문에 할 수 있는 캐릭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여겨진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해왔던 그의 코믹 연기는 분명 그의 하나의 연기 패턴으로 분명히 자리 잡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의 코믹 연기는 말로써 좌중을 압도하지 않고, 인간 냄새가 짙게 묻어나는 휴먼 코믹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때로는 그 슬랩스틱 안에 적절히 멜로적 감성이 묻어나오기도 한다. 그런 코믹 연기가 바로 안성기의 독특한 코믹 연기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3) 조선희, “ ‘안성기’ 영화배우 외화 홍수 속 한국영화 버팀목 “, 『한겨레』, 1994년 01월 18일, A12.

3. 서브텍스트로 스토리를 부드럽게 전하는 멜로 연기

영화배우 안성기는 말보다 눈으로 스토리를 전하는 독특한 멜로의 연기 패턴을 보여준다. 그의 멜로는 다른 배우들과는 조금 다르다. 그는 스토리텔링을 눈으로 전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스토리텔링을 다양하게 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 방법을 아는 배우기에 좋은 시나리오를 선정할 수 있었고,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탁월함이 있었기에 등장인물에 캐릭터를 정확하게 입힐 수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의 멜로는 그의 스토리텔링이 묻어나는 부드러운 몸짓과 표정으로 관객을 압도한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화장>에서는 젊은 여성에게 흔들리는 중년 남성의 멜로를 부드러운 표정으로 담아내어 그의 멜로 연기의 새로운 변신을 꾀하기도 했다.

안성기는 인생의 서글픔과 끊어오르는 갈망이 혼재된 중년 남성의 내면을 특유의 차분한 연기로 표현했다. 그는 욕망과 절망을 눈빛 하나로 뿔어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광고 카피를 결제해야 하는 팍팍한 삶에 짓눌린 오상무의 고단함, 젊은 여성 앞에 흔들리는 중년 남성으로서의 갈등을 모자라지도, 과하지도 않게 스크린에 담아 낸 것은 안성기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4)

그가 가장 어려웠다고 토로한 멜로 연기는 텍스트가 아닌 눈빛으로 스토리를 전하는 그만의 방법으로 소화하고 있으며, 그의 새로운 연기 패턴의 하나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Ⅲ.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서브텍스트 활용

영화 <부러진 화살>은 2011년 10월 제 16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최초로 공개되었다. 2007년에 국내에서 일어난 ‘석궁 사건’을 영화로 다시 재구성하여 만들어졌다.

4) 김수정, “‘화장’ 안성기 60년간 빈틈없는 삶을 산다는 것(인터뷰)”, 『TVReport』, 2015년 03월 28일,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680346>.

영화의 줄거리를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주인공 김경호 교수(안성기 분)는 대학 입시 시험에서 같은 대학 동료 교수가 출제를 한 수학 문제 오류를 잡아내면서, 부당하게 학교에서 해고를 당하게 된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하지만 패소하고 항소심마저도 기각된다. 이에 김경호 교수(안성기 분)는 담당 판사를 찾아가 왜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는지를 따지면서, 석공으로 위협을 하게 된다. 이 사건은 사회적 이슈가 되어 각 매체로 퍼져나가게 되고, 사법부에서는 김경호의 이러한 행위가 사법부를 겨냥한 테러로 간주하면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된다. 이에 대해서 김경호는 판사를 겨냥했지만 쓰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다, 계속 항소를 하면서, 새로운 재판부가 꾸러지지만 이에 맞서는 김경호는 계속 항소만 하게 된다.⁵⁾

안성기는 김경호의 역할을 만나서 사실에 입각한 가장 비슷한 인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어떤 역할을 맡아도 부드럽고 사람 좋은 느낌으로 '안성기화' 시킨 부분이 많았죠. 하지만 이번엔 최대한 나의 습관과 속성과 개성을 제거하려 신경을 많이 썼어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미화되고 매력있게 표현되면 당초 영화가 말하려는 주제가 달라질 테니 말이죠."⁶⁾

위의 인터뷰에서 보듯이 새로운 인물을 창조하기 보다는 최대한 김경호의 인물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는 인물의 캐릭터를 배우 안성기화 한 것이 아니라 김경호화 하여 연기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중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그의 서브텍스트 활용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이 영화에서 김경호의 고뇌와 다양한

5) 노광우, 용미란, 「한국 대중영화의 여기자 재현: <모비딕>과 <부러진 화살>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34호(2014), p.253.

6) 김양수, “안성기 '부러진 화살', 내 인생 가장 혁신적 캐릭터(인터뷰)”, 『조이뉴스24』, 2012년 01월 12일, http://joy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700100&g_serial=630432&rrf=nv.

심적 변화를 다양한 서브텍스트를 활용하여 김경호를 표현하였다. 이 영화에서 몇 가지 장면을 중심으로 서브텍스트 활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현실 속 부조리에 대한 분노



그림 1. 영화 <부러진 화살>, 2011.

<그림 1>에서의 장면은 수학 문제가 오류로 밝혀진 후 김경호가 오류 문제를 출제 한 최고수를 위로하며 맥주를 마시고 있다. 호프집에 학교의 다른 교수가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 교수들이 어떻게 됐냐고 묻고, 들어온 교수는 “아 우리가 모범 답안을 만들어 다시 채점하기로 했어요.” 라는 말을 던진다. 그러자 김경호(안성기 분)는 “아니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합격자가 바뀌게 되는데..” 라는 말을 하게 된다.

위 장면에서 안성기는 서브텍스트를 통해서 왜 옳은 데로 안가고 거짓을 행하려 하는 것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그만의 독특한 눈빛으로 교수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다. 영화에서는 연극과는 달리 영화만의 프레임 안에서 모든 상황을 보여줘야 하는 배우만의 표현 역할이 꼭 필요하다. 타이트한 클로즈업 쇼트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의 말을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 연극을 주로 했던 배우들은 클로즈업 쇼트에서 너무 과한 오버스러운 표정을 보여줌으로서 오히려 관객들에게 가벼운 대사 전달 자체도 굉장히 반감을 줄 수 있게 된

다.7) 하지만 배우 안성기는 카메라의 시나리오 분석 및 쇼트들을 분석하여 알아내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움직임 표정만으로 전혀 튀지 않는 부드러운 인물의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서 관객에게 편안함을 선사하고 있다.



그림 2. 영화 <부러진 화살>, 2011.

<그림 2>는 김경호 자신이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떨어져 학교에서 파면을 당하자, 김경호는 법원에 재임용 심사에 대한 소송을 내지만 연이어 기각되어 버린다. 그러자 김경호는 자신의 석공을 들고 박봉주 판사의 집 엘리베이터 앞을 찾아가 “박봉주 판사, 왜 법을 어겼는지 자백하시오” 라는 말과 함께 계단에서 내려온다. 이에 박봉주 판사는 놀라면서 “뭐하는 짓이오, 당신” 이라는 말과 함께 바로 컷트가 넘어간다. 영화의 맨 처음 등장하는 두 인물의 관계는 앞으로 이야기를 끌고 갈 하나의 장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여기서 보면 김경호 (안성기 역)는 왜 자신의 억울함을 재판장인 박봉주 판사 당신이 헤명 못하는 것인가 라는 표현이 눈빛과 호흡에서 서브텍스트로 잘 드러나 있고, 안성기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고정된 쇼트에 맞춰 프레임 밖에서 대사로 말하고, 프레임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며 대사로 말하고 있다.

7) 황탁하, “영화 연기를 위한 '배우노트'의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영화 『화려한 휴가』의 이동규 역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예술전문사(2009), p.9.

2. 극단적 상황에서의 절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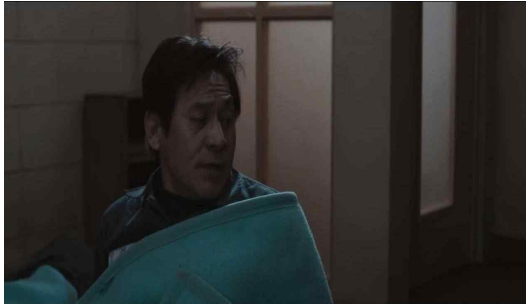


그림 3. 영화 <부러진 화살>, 2011.

<그림 3>에서는 자신이 교도소에서 소송을 준비하며 쓰던 독방에서 쫓겨 나와 일반 죄수와 함께 잠을 자는데 다른 수감자가 괴롭힌다. 김경호 특유의 뻣뻣한 태도를 보이자 그는 김경호를 성추행하게 된다.



그림 4. 영화 <부러진 화살>, 2011.

<그림 4>는 성추행 당한 후의 김경호가 가족들과의 면회실에 들어와 가족들과 함께 면회를 하게 된다. 그러나 김경호의 아내와 변호사, 신문기자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보이고 있다. 이런 장면에서 대답을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장면에서의 서브텍스트를 통해서 가족에게 심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안에 내포된 서브텍스트는 지금까지 참고 지내온 모든 일들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서브텍스트로 관객에게 의미를 전달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만큼 배우의 몰입도 반영 유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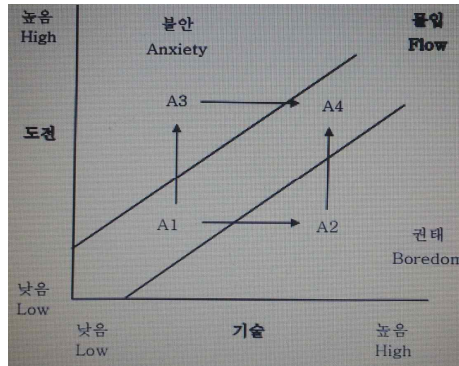


그림 5. 칙센트미하이 몰입초기모형⁸⁾

배우의 몰입도는 영화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헝가리의 심리학자 칙센트 미하이 (Csikszentmihalyi)는 인간의 몰입 초기 모형에서 인간 자기 자신의 내재하고 있는 기술보다 도전하기 위한 도전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자신은 불안을 느끼고, 기술보다 도전 수준이 낮으면 권태를 느끼며, 기술에 도전 수준이 유사한 경우에 비로소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술 사이에서 서로 균형을 이루어 활동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도전과 기술의 양 축을 설정하고 두 요인이 균형을 이루는 대각선상에서 몰입경험이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⁹⁾

이처럼 배우의 몰입도에 관하여 배우의 기술성과 도전의 정도가 높으면 자연스럽게 몰입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 김은영, “연기 및 뮤지컬전공자의 무용정서표현성, 감성지능 및 연기몰입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예술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0), p.41.

9) 김은영, 앞의 논문, p.41.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배우 안성기는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 성과 도전 정도를 최고로 올리고 극도의 몰입을 통해 관객에게 서브텍스트로 의미를 전달하는데 성공하였다.

3. 상황에 대한 역설적 웃음



그림 6. 영화 <부러진 화살>, 2011.

<그림 6>장면에서는 재소자 왕제비에게 춤을 배우게 되는데 바로 전 장면에서는 이태우 판사와 실랑이가 이루어진 후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는 자신의 상황을 재소자 왕제비를 만남으로서 가볍고 전혀 색다른 각도로 이끌고 가게 된다.

왕제비는 김경호에게 춤을 가르쳐 주면서 밖에 나가서 자신이 여자를 소개시켜 줄 테니 만날 것을 권한다. 이 장면에서는 평소 김경호가 그 동안의 힘들었던 여러 일들로 인해서 잘 보여주지 않았던 웃음이 나타내고 있다. 왕제비가 춤을 가르치며 김경호 자신에게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김경호에게 권하기 때문이다. 현실 속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왕제비가 원하는, 자신은 꿈조차 꿀 수 없는 가르침의 어처구니없음을 역설적으로 웃음으로 서브텍스트를 전하고 있다.

많은 연기 교육자들은 연기에서의 '반응'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 특히 그런 연구들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을 인지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만들고, 계획되지 않고 자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반응'을 표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그

래서 준비된 상태를 만들기 위한 신체 감각 훈련과 이를 통한 즉각적인 '반응'을 강조하였다. 10)

배우의 반응 즉 리액션은 영화에서도 배우가 갖춰야 하는 테크닉적 요소 중 하나이다. 촬영에서 배우 나 자신이 하는 이야기에 상대 배우가 받아서 반응을 해줘야 그 반응에 나에 대한 반응이 이어 받아 상대방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상황에 맞는 연결이 관객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이다.

서브텍스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안에 또 다른 뜻을 내포하기 위해서 배우의 반응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다. 상황에 대한 역설적인 웃음은 안성기의 트레이드 마크인지도 모른다. 그의 한쪽으로 올라가는 입꼬리 속에 담긴 웃음 속에는 많은 의미를 지닌 그의 서브텍스트 활용은 이미 그에게 내장되어있는 하나의 경이적인 노하우가 아닐까 생각된다.

4. 세상을 향한 절규의 웃음



그림 7. 영화 <부러진 화살>, 2011.

<그림 7>은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이다. 엔딩에서 김경호의 재판은 기각된다. 결국 구치소로 이동하게 되어 버스에서 재소자들이 내리고,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에게 열차려를 주자 김경호는

10) 오동주,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관찰이 연기에서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 : 자극의 인지방법과 '반응'의 표현수단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예술전문사(2007), p.4.

말을 듣지 않는다. 화가 난 교도관들은 김경호에게 다가가고 왜 말을 듣지 않는지 김경호에게 압박을 한다. 그러자 김경호는 펜을 잠시 빌려달라면서 경찰들의 이름을 적고, 공무원의 월권 행위, 교도관의 복무 규칙에 이런 사항은 없다고 말하고 그가 웃으면서 영화는 마무리되어간다. 그는 웃음 속에 “야 이 더러운 세상아! 끝까지 한판 해보자.” 라고 외치는 듯 환하게 웃으며 영화는 엔딩이 된다.

그가 마지막 화면 속에 담은 이 웃음은 서브텍스트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도 있다. 관객의 몫으로 할당된 그의 마지막 웃음에 대한 해석은 다양해 질 수 있는데, 이런 관객의 여운과 자신만의 가슴 속에 담겨 있는 의미 해석이 서브텍스트를 활용하는 영화 속에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IV. 결론

영화배우 안성기의 연기에서 몇 가지 연기 패턴들을 나름대로 분류해 보고 그의 서브텍스트 활용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고찰해 보았다. 1957년부터 꾸준히 스크린을 통해서 사랑 받아왔던 영화배우 안성기의 연기 패턴을 나름대로 분류하여 비범한 카리스마 연기, 휴먼 코믹 연기, 부드러운 멜로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그의 영화 전체를 통한 통시적 연구가 아니었으며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가 출연 전체 영화에 대한 시대적인 분류를 통한 연기 패턴의 변천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느끼며 본고는 전체적인 연기 패턴에 대한 간략한 고찰에 그치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아울러 그의 서브텍스트 활용에 대한 연구에서는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주인공 김경호 역에 대한 인물을 나타낼 때의 서브텍스트 활용과 표현 방식을 몇 가지 화면을 캡처하여 설명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의 표정, 지금까지의 삶과 전혀 다른 감옥에서의 절망과 갈등의 표정,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음으로 나타내는 서브텍스트, 세상을 향한 절규의

웃음 등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애초부터 평생 배우를 하겠다고 생각했고, 배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현장에 임하는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11)

배우 안성기는 그간 120여 편의 영화를 준비해오면서 배우로서 맡은 역할에 대한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배우다.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도 그는 자신을 김경호화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지 짐작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서브텍스트를 활용하는 많은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의 서브텍스트 활용이 이 영화에서 더욱 빛나게 되었으며 연기 교육생들에게는 서브텍스트 교육의 참고서 같은 영화가 되었다고 본다.

배우는 영화 시나리오를 받으면서 촬영에 들어가기 전까지 설레임을 느끼면서 역할에 대한 분석 및 대사 암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캐릭터에 감정을 입히면서 때로는 텍스트보다는 서브텍스트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준비해야 함을 알아야한다.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배우 안성기의 서브텍스트 연기는 어디까지 발전될 것인지 또 그 끝은 어디인지 지켜보고 싶다.

참고 문헌

- 메리 엘렌 오브라이언, 최상식 옮김, 『영화연기』, 연극과인간, 2003. p.148.
- 밀리 S 배린저, 이재명 역, 『연극이해의 길』, 평민사, 1991.
- 김은영, “연기 및 뮤지컬전공자의 무용정서표현성, 감성지능 및 연기몰입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예술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11) 김형석, “‘비범한평범 배우안성기’”, 『영화월간스크린』, 2009년 02월 16일,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9&contents_id=138.

오동주,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관찰이 연기에서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 : 자극의 인지방법과 '반응'의 표현수단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예술전문사(2007).

황탁하, “영화 연기를 위한 '배우노트'의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영화 『화려한 휴가』의 이동규 역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예술전문사(2009).

노광우, 용미란, 「한국 대중영화의 여기자 재현: <모비딕>과 <부러진 화살>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34호(2014), p.253.

김양수, “안성기 '부러진 화살', 내 인생 가장 혁신적 캐릭터(인터뷰)”, 『조이뉴스24』, 2012년 01월 12일,
http://joy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700100&g_serial=630432&rrf=nv.

김수정, “‘화장’ 안성기 60년간 빈틈없는 삶을 산다는 것(인터뷰)”, 『TVReport』, 2015년 03월 28일,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680346>.

김형석, “‘비범한평범 배우안성기’”, 『영화월간스크린』, 2009년 02월 16일,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9&contents_id=138.

박은주, “[영화세상] '실미도' 최재현 준위역 안성기”, 『한국일보』, 2003년 12월 22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8&aid=0000212988>

조선희, “‘안성기’ 영화배우 외화 홍수 속 한국영화 버팀목 “, 『한겨레』, 1994년 01월 18일, A12.

NAVER, www.naver.com, 검색어 : 영화 부러진 화살, 서브텍스트, 문예영화, 안성기

문예영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9229&cid=42617&categoryId=42617>

<부러진 화살> (Unbowed, 2011)

ABSTRACT

Realization of Style Applying Subtext - Focusing on Ahn, Sung-kee's Role in Movie <Unbowed>-

Eo, il-Sun, Jeong, Min-Young

This thesis will observe and study the acting pattern and subtext of Ahn, Sung-kee who is known to be "The Nation's Actor" in South Korea's movie industry and currently has been on the screen with multiple different characters in about 120 films. He started his career as a child actor in Kim, Ki-young's movie <The Twilight Train> at the age of five. Ahn is exceptional at communicating through solely on screen in terms of delivering characters' characteristics to audience with variety of characters. We provided some of the acting patterns he has shown in different roles of characters that he played such as in comedic, mellow and extraordinary acting. Following will be analysis on subtext of Professor Kim, Kyung-ho the role Ahn played in Jung, Ji-young's movie <Unbowed> in terms of what type of factors was prepared and how it has delivered in each important scene. Generally, acting's basic skills and talents are similar between theater and movie. However, in movies, understanding of shots and preparation is needed. To deliver this well, a depth study of those characteristics such as expression method of subtext and continuous practice is necessary.

Based on researches, we will talk about how important screen actors need to understand and prepare those characteristics when they act their roles and express the subtext of each character.

Key Word : Film Acting, Camera Acting, Sub Text, Acting.

어일선
청주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360-76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호 576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26-311
Tel : 043-229-8708
filmeo@naver.com

정민영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연극영화학과
(360-76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호 576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26-125
Tel : 043-229-8692
generalj87@gmail.com

논문투고일 : 2015.11.01.
심사종료일 : 2015.11.24.
게재확정일 : 2015.11.26.